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요한복음 강해

누가 할까 II

(요 6:10-15)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2. 두 종류의 반응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15절)

(1) 이기적인 반응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모두 다 고상한 행동만 보여주지 않았습니 다. 그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줄 수 있다면 예수님께 협력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이유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 시어 더 이상 떡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가차 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쳤습니 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벵겔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로마서 6장 4-6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무슨 복이나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서는 신앙인으로서 한 발자국도 뻐 수 없습니다.

(2) 이용하려는 반응

예수를 믿고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떡을 주지만 하면 예수님을 받들겠다는 식으로 교회의 이름을 마음대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에 이용하고 철저히 자기 오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시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인용하거나 자기 변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정치는

인생의 생활 방편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입니다. 편리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고 법대로 해서 해결 안 될 때에 이용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적 해결’은 법 같은 것은 덮어놓고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3. 결론

광야에서 행하신 기적의 결론을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되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이루십니다. “지금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가진 것을 내놓아 보아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사할 때 보면 웬 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물질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건강도, 자녀도, 지식도, 생명도, 친구도, 사랑하는 배우자도 받았습니다. 교회도 주시고 민족국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너무 많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 무엇이냐”라고 하실 때 소년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놓았고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소년의 그것을 시작으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는 참으로 가난했지만 한 움큼 가루와 조금 있는 기름을 엘리야에게 드렸고 그것으로부터 가루와 기름이 넘치게 나왔습니다.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소년의 떡을 받으셔서 먼저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는 좋은 일 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적은 나눠줄 때 일어납니다. 소년이 떡을 내놓고 그 떡을 나눌 때 떡이 커졌습니다. 흠여 구제하여도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어 광주리에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조금도 낭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풍성하게 나누되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풍성하게 나누고 절약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사회를 아름답게 꾸려나가고 후손 대대에 훌륭한 사회를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바치고 후히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시작한 주일 대면 예배



정부의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으로 지난 주일부터 주일 대면 예배를 다시 시행하였다. 오늘도 지난 주일과 동일하게 주일 1, 2, 3부 예배와 주일 찬양예배에 한하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리되, 본당 2, 3, 4층

예배실 전 좌석의 10% 내에서만 드린다.

교회학교 주일예배와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는 종전과 같이 비대면으로 드린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드릴 시간이 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예배 시 향존직 은퇴식 찬양예배 후 예·결산 공동의회

2020년도 향존직(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이 오늘 2021년 1월 31일 찬양예배 시에 거행된다. 은퇴자는 총 23명으로서, 장로 은퇴자 2명(조정식 오광환), 집사 은퇴자 7명(김광욱 박광서 박희서 안재선 이승우 이영조 임선철), 권사 은퇴자 14명(고영숙 박선자1 박숙 김남순1 김선이 김영식 김인숙2 나상민 박영옥 이영희 이옥희 주경자 최영란 최현인)이다.

향존직 은퇴자는 총회 규정에 의해서 만 70세가 되는 연말에 은퇴하게 된다. 그러나 만 70세에 이전이라도 개인 사정상 당회 허락을 받아 조기 은퇴할 수도 있다. 이분들이 그동안 서울교회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섬기신 봉사 경력은 다 소개하지 못하고 간략하게 게재함을 양해 바란다.

은퇴자들에게는 교회가 준비한 은퇴패를 전달하게 되고 이와함께 장로회, 스테반회, 권사회, 샬롬 권사회 및 기타 부서와 개인이 준비한 선물도 증

정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음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과 기도와 축도를 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오후 4시부터 본당 2층에서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홍순복 사모님을 모시고 은퇴자 가족사진 촬영이 있다. 은퇴자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퇴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찬양예배 후에는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에 대한 공동의회가 열린다.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2021년 1월 이후 새가족으로 등록된 교인(전입교인 포함)은 새가족부 교육을 마친 후 등록교인 자격을 부여하되 등록카드 제출 후 1년간은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한다.

지난 주 우리 교회는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2020성경통독자 추가

- 2독 : 홍순복 사모
- 1독 : 서미경(11교구)

연 말 정 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 ④ 주소 / ⑤ 가족합산여부

연말정산 자료는 파일로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립니다.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 좌측 사진 설명

- ① ② ③ 2020 성경통독자 시상
- ④ 신임교역자 소개
- ⑤ 예·결산을 위한 특별제직회
- ⑥ 특별제직회를 인도한 임시대회장 권용평 목사
- ⑦ 특별제직회 대표기도하시는 당회서기 임상현 장로
- ⑧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며 열린 특별제직회

(사진 : 정승균 집사)



항존직 은퇴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마태복음 25:21)

· 은 퇴 장 로 ·



조정식 은퇴장로

- 13교구 교구장
- 건축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교구위원회 위원장
- 교육3국 국장
- 차량관리부·설교사역도고부·성경대학·예전부·상조부

- 금요철야부·홍해작전 각 부장
- 임마누엘찬양대·베들레헴찬양대·갈렙찬양대 각 대장
- 교회갱신연구원·목회자세미나 각 원감



요광환 은퇴장로

- 12교구·15교구·16교구 각 교구장
- 교구위원회·재정위원회·구제위원회·건축 및 건축물관리위원회 각 위원장
- 교육2국 국장
- 차량관리부·출판국·홍해작전·사명자대회 각 부장

- 할렐루야찬양대·임마누엘찬양대 각 대장
- 교회갱신연구원 원감
- 목회자신학세미나 원감

· 은 퇴 집 사 ·



김광옥 은퇴집사

- 스테반회 회장
- 제직회 서기
- 예배위원회 부위원장
- 중등부·소요리문답부 각 부장,
- 그레이스핸드벨 대장·임마누엘찬양대·베들레헴 찬양대 부장

- 식당관리부·김치세미나·계수 2부장
- 청년부 부감
- 8교구 교구장



박광서 은퇴집사

- 주일 2부예배 팀파니스트



박희서 은퇴집사

- 소요리문답부 부장
- 신앙강좌부·장년부 각 부감
- 식당관리부
- 차량관리부
- 베들레헴찬양대



안재선 은퇴집사

- 교회설비담당 직원



이승우 은퇴집사

- 사랑부 부장
- 어린이수요예배부 부장
- 장년부 부장
- 상조부
- 베들레헴찬양대



이영조 은퇴집사

- 고등부 교사
- 아멘관현악단 대장
- 헌금계수위원



임선철 은퇴집사

- 계수위원
- 헌금위원
- 식당관리부 팀장

· 은 퇴 권 사 ·



- 헌금위원

고영숙 은퇴권사



- 할렐루아찬양대·시온찬양대·은빛찬양대·갈렙찬양대
- 상조부
- 수요노방전도팀
- 선교사도고팀
- 설교사역도고팀

곽숙 은퇴권사



- 할렐루아찬양대
- 군선교사도고팀

김선이 은퇴권사



- 리브가전도회·에스더전도회 각 회장
- 할렐루아찬양대 부대장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위원
- 핸드벨 부대장
- 15교구 간사

김인숙2 은퇴권사



- 헌금위원
- 할렐루아찬양대
- 설교사역도고부

박영옥 은퇴권사



- 헌금위원
- 경로대학

이옥희 은퇴권사



- 유치부 부감
- 헌금위원

최영란 은퇴권사



- 한나전도회 회장
- 초등부
- 소요리문답부
- 설교사역도고부

곽선자 은퇴권사



- 헌금위원
- 성례부
- 화요축호전도팀

김남순 은퇴권사



- 성례부
- 상조부
- 수요일후전도팀
- 목요기도팀 팀장
- 할렐루아찬양대 부대장
- 임마누엘찬양대

김영식 은퇴권사



- 할렐루아찬양대

나상민 은퇴권사



- 권사회 회장
- 성례부 부장
- 새가족부 부감
- 선교사도고팀

이영희 은퇴권사



- 권사회 부회장
- 한나전도회·리브가전도회 각 회장
- 청년부·장년부 각 부감
- 소요리문답부·신앙강좌부·설교사역도고부
- 수요일후전도팀·선교사도고팀

주경자 은퇴권사



- 유아부 부감
- 헌금위원
- 초등부교사
- 설교사역도고부
- 선교사도고팀

최현인 은퇴권사





조건우 (초등부 5학년)

작년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슬픈 해였습니다. 학교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교회도 못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상을 타게 된 것입니다. 3학년 때부터 시작한 성경통독은 4학년 때도 했는데 초등부에서 다독상을 주셨습니다. 정말 신나고 기뻐했습니다. 성경 읽기는 재미있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어려운 이스라엘 왕 이야기가 나오면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참고 읽으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은 정말 신기합니다.

엄마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수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3서 1:4)

조연우 (중등부 1학년)

성경통독을 시작한 것은 엄마의 권유로 2019년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빨리 못 읽어서 자기 전에 엄마가 읽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읽어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여행을 가거나 또는 과제가 너무 많아서 성경을 못 읽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에는 성경을 몰아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2020년! 유·초등부에서 성경통독을 하면 상품을 주는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지금까지 그냥 성경통독을 했는데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은 1독을 진행 중에 프로젝트로 2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2독을 하니 읽어야 하는 양이 2배로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읽어서 결국 1등을 하고 상품을 받았습니. 귀한 상품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살리시고, 벌하시고 가르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지만, 읽을수록 이해가 더 잘됩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도 성경통독을 계속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이 해시켜 주실지 기대하면서...

교회설립 30주년 기념 순례자 주최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

순례자는 교회설립 30주년을 맞아 전교인을 대상으로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1. 대상 : 서울교회 모든 성도
2. 기간 : 1월 10일(주)-12월 26일(주)
3. 마감 및 심사 : 10월 31일(주)
4. 결과발표 : 11월 7일(주) 순례자를 통해
5. 전시 : 11월 7일(주)-12월 26일(주)
6. 시상 : 대상 1명
사랑상·소망상·믿음상 각 1명
장려상 (참여인원에 맞게 변동)

7. 응모내용

- ① 서울교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교회 사벽 풍경, 야경 등 다양한 교회 사진
- ②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서울교회입니다. 교회내·외 행사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 혹은 비대면예배로 인해 인터넷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습 등

8. 응모방법 :

- ① 흑백, 컬러 모두 가능
- ② 3000x2000 픽셀 이상의 jpg파일
- ③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④ 카톡으로 전송 시 사진 화질 선정을 반드시 원본이나 고화질로 전송
- ⑤ 사진에 날짜 표기가 없어야 함
- ⑥ 제출시 반드시 사진 제목과 참가자 이름, 직분 표기
9. 제출된 사진들은 교회 행사나 순례자 편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10. 제출 :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섬김의 손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성도께서 만나홀에서 사 용할 앞치마 20장과 방수앞치마 7장을 제공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곳 말라위 교도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가 금지되어졌습니다. 5월부터 공항이 완전히 폐쇄되어 사역 현장에 복귀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8월 경에는 재소자들 사이에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더욱 안절부절했었습니다. 그토록 과밀수용된 곳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니 말입니다. 면역력을 급상승시켜 코로나를 이

길 힘을 준다는 한방약을 긴급히 확보하여 하늘 길이 열리자마자 복귀하였습니다. 지구의 남반부에 위치한 터라 기온이 낮은 6월과 7월이 지나면서 다행히 서서히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더니 9월 중순이 되어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말라위 교정당국의 공식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이튿날로 지체 없이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 재소자 형제들이 한 장소에 모여 누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나눔의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출소 후에도 지속되면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으로부터

(6면 계속)



180도 돌이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구촌의 어떤 교도소에서든 누릴 수 없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비록 각급 학교가 휴교 조치에 들어감에 따라 급식 사역이 한동안 중단되었지만 마칸디와 카송구에 있는 영양식 공장은 계속 가동되었습니다. HIV-AIDS를 포함한 각종 기저 질환자들과 특히 노인 재소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쉽게 감염이 된다는 정보에 따른 교정당국의 요청에 따라 십여 개의 교도소에 꾸준히 상당량의 영양식을 공급해 왔습니다.

이제 9월부터 학교들이 정상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루를 나눠주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저희는 무조건 학교에서 직접 조리과 배식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지고 간 가루를 보호자들이 얼마나 성실히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배식을 할 때에도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조리하는 사람의 위생상태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엽 마칸디 교도소에서 약 10킬로 떨어진 루첸자라는 소도시의 경찰서장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만날 장소에 가보니 지역교회연합회 회장단과 사회복지 요원들 및 시청 공무원 등이 모여서 경찰서 관내에 피해자구호와



(Victim Support Unit)가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저희 지역에 기차선로가 새로 깔리면서 루첸자가 인근의 행정중심도시가 되어 경찰서의 관할지역이 크게 확대된 바람에 주로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폭행으로부터 긴급히 구출하여야 할 대상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에 이들을 임시로나마 수용할 수 있는 피난구호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rescue)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찌니라(deliver)’ 하시는데도” 시편 82편 말씀을 함께 나누며 40여 지역 교회의 수백 명에 달하는 성도님들이 한달 내내 매일 루첸자 도시 청결작업과 ‘피난처’ 신축공사 현장에 동원되어 꼭 30일 만에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가해자로부터 피신하도록 한 후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여 회복과 심지어 화해까지 이룸으로써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건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역에 어려움이 생길까 한때 걱정도 했지만 예상보다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일년 내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라위에서 김용진 선교사 올림



2021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암송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 일반부 본선
10월 30일(토) 오후 2:00
- 교회학교 본선 : 10월 31일(주)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31일 찬양예배 시에 암송할 예정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2월1일	월	출 34-36		신 1-7	
2월2일	화	출 37-39		신 8-14	
2월3일	수	출 40		신 15-22	
2월4일	목	레 1:1-6:7		신 23-29	
2월5일	금	레 6:8-8:36		신 30-34	
2월6일	토	레 9-11		수 1-8	
2월7일	주일	레 12:1-14:32		수 9-14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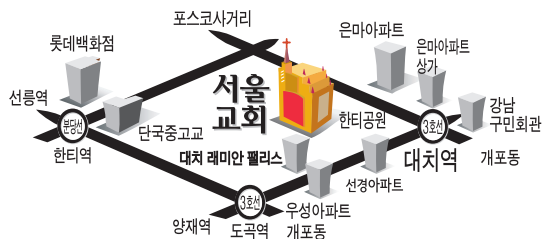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우리 모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2. 멀리 선교지에 있는 이방인들과,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게 하옵소서.
3.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지금까지의 헌신과 노고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은퇴 이후에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시는 향존직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